

‘집권 2년차’ 트럼프발 세계질서 재편 계속된다

관세·무력 앞세운 우선주의...국제정세 새해에도 격랑 ‘빅 이벤트’ 내년 4월 베이징 미중정상회담에 이목집중

재집권과 함께 다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취임 2년 차에 접어드는 새해에도 더욱 거센 기세로 국제사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군사·기술력에서 세계 최강인 물적 토대를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걸었고, 이를 임기 내내 유지할 태세다. 그는 다자주의를 사실상 부정하고 동맹을 재정의했으며, 여기서 파생된 일대일 외교 담판에선 거친 승부사적 기질과 거래적 가치관을 노골화했다.

이는 각국이 마주한 최대 도전이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난제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내년 국제정세는 2025년처럼 격랑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에 최대 난관이자 승부처는 단연 중국이다.

양국이 고율의 관세 부과·유예를 거듭하고 수출통제를 비롯한 제재성 조치를 주고받으며 서로 대치해 온 배경에는 경제·외교·군사·기술 측면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중국의 ‘굴기’가 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다. 스콧 배선트 미 재무장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중 최소 네 차례 만날 예정인데, 그 첫 무대가 베이징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대통령이 8년여 만에 중국의 수도를 찾는 ‘빅 이벤트’이자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 마주 앉은 이래 첫 대화가 된다.

두 ‘스트롱맨’의 힘겨루기는 향후 경제적·군사적 측면에서 세계질서의 재편, 전 세계를 휩쓴 ‘관세 전쟁’의 결말,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를 가능케 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짙다.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강대국의 담판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 특히 장기간 교착 상태인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어떤 전기(轉機)를 맞게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미중 회담만으로는 남북·북미 대화의 급진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북러 밀착’이라는 새 변수가 돌출한 가운데, 러시아의 경우 시스템보다는 정상간 신뢰와 친분에 크게 의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접근법이 좀처럼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베이징을 방문하는 계기에 다시 북미정상간 소통이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중간 분야별로 전술적 ‘휴전’과 부분적 협력은 가능할 수 있지만 미중 전략경쟁의 근본적 큰 틀은 새해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중국-러시아, 북한-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축으로 하는 북중러 3국의 공조가 갈수록 더 견실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새해는 그에 맞선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시험대에 오르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대 중국 견제 쪽에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라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파열음을 피하길 원하는 한국의 새 좌표를 원활히 짚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정상 합의의 사항인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한국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둘러싼 실질적인 진전이 새해에 이뤄질지가 중요해졌다.

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행보에 영향을 줄 양대 미국대 변수로는 현재 연방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소관세 관련 소송과 11월 3일 미 중간선거가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세수 확대 수단과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상소관세 1.2십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정을 받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는 일정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푸틴, 우크라이나 새 종전안 검토...비관론 제기

돈바스 포기 불가 등 핵심쟁점 우크라이나와 입장 간극 여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마련한 새 종전안 검토에 들어갔지만 수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 종전안도 국경선 변경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둘러싸고 러시아의 입장과 상당한 간극이 있는 데다가 전장에서 주도권을 쥐려 러시아가 핵심 요구에서 물러날 뚜렷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크렘린궁은 2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온 특사에게서 종전안 협의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협의한 20개항 종전안의 최신판을 공개하며 푸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새 종전안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내주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해 사실상 항복으로 볼린 10월 초안과 상당히 달랐다. 여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요구했던 서방의 안전보장 확약과 국가재건 계획 등이 새로 포함됐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의 근본 원인이 서방의 동쪽 세력확장이라고 지적하며 우

크라이나 내 서방 군사력 개입을 논외로 간주해왔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함께 양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는 영토와 관련해서도 입장차는 거의 줄어

들지 않았다. 이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줄어든 입장차를 고려할 때 러시아가 새 종전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 비관론이 제기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쟁에서의 진전으로 자신감을 얻은 데다 새 계획이 러시아 국민에게 승리로 포장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크렘린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